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취업 및 정주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 관심이 쏠린다

이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고졸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도청 14개 시·군 유관기관,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혁신 기술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기획한 '동행', '혁신', '비상'이라는 목표로 지난 2월

##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출발

###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 투입

### 스마트농생명 등 분야별 인재 양성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시키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9일 도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교육청·지자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공동으로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구축해 지역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지역인재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이후 센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수립 등 사

업 운영을 총괄한다. 특히, 직업계고와 참여기관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현장직무 교육과정 개발, 기업 발굴·채용 연계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스마트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7개교, 바이오식품 10개교, 지능형농업설비 8개교 등에서 32개 학과를 핵심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생명·바이오산업은 전북의 5대 전략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스마트팜혁신밸리 등 산업벨트 형성돼 있고, 관련기관 및 기업이 집적화돼 있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연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도내 직업계고에서는 핵심분야별

로 산업체주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농생명산업 생산 및 창업가 바이오식품산업 제조 및 연구원 지능형농업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가 등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도교육청은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인재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이는 학생선발, 직업계고 기술교육, 취업 지원, 창업지원, 후학습 지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진학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직업계고는 산업체 주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어, 지역기업은 채용 프로세스 개발 및 채용 인원을 확보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한다.

다음으로, 지역대학은 취업 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학습을 위해 일

학습병행제·계약학과 등을 운영해 후학습·일학습병행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성장경로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동행기업 및 동행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의인재교육과 이강 과장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직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고졸 인재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후학습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는 고창, 무주, 순창 등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화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2년 내에 기초단위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임민규 현대차

전주공장 초청 강연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친환경 에너지 ICC(기업협업센터)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인 임민규 전무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주제로,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에는 취업 및 실무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상용차 생산시설인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의 공장장을 강사로 초청해 친환경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수련교육 일환으로 마련된 복합모험활동.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2023학년도 수련교육 '뚝 올랐다'

### 도교육청 학생수련원, 11월 7일까지 정규과정 운영

### 프로그램 학생선택제·수련지도사 담임제 등 첫 도입

전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원장 정찬)이 2023학년도 수련교육의 뚝을 올렸다

29일 학생수련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군산원평중학교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 학생 선택제, 수련지도사 담임제를 도입했다.

올해는 3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등학생 대상 정규과정 23개교 2,000명, 중학생 캠프과정 24개교 953명, 초등학생 안전교육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육청 여름방학 중 가족 수련캠프, 자유 숲 산책길 프로그램, 제7회 스포츠클라이밍·국궁대회,

교육기관 각종 캠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

학생수련원은 집라인·짚트랙·복합모험활동·스포츠클라이밍·AR클라이밍·국궁 등을 즐기며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갖췄다. 더불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국악 체험, 지역 기관과 연계한 허브밭길 체험, 지리산 환경을 이용한 숲 체험, 계절산인문·예술 콘서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정찬 원장은 "수련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수련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심신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는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제3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 주제는 국내·외 에듀테크 정책 및 활용 사례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다.

이날 전북교육청 에듀테크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함께 했다

먼저 '국내·외 에듀테크 정책 및 활용 사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AI 교수학습플랫폼 뉴랩 3.0, 경기도교육청의 IT 체육교실,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지원플랫폼인 '아이톡톡'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에듀테크 교육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의 칸랩스와 과 미네르바 스쿨, 민간과 정부의 협

력을 통해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한 영국의 에듀테크 오픈 플랫폼 사례, 국가차원의 에듀테크를 진행하는 중국의 AI 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적용한 스웨덴의 학교 사례와 게임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활용한 국외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ChatGPT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대해 흥미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데이터로 보는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일반학교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나눴다. /장은성 기자

##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 정부 태도 강력 규탄"

### 서거석 교육감 "역사교육 내실있게 해달라" 당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사진)은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징병·강제동원 기술을 희석시킨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긴급 보도 자료를 통해 "동북아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에 우리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체



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비롯한 역사교육을 내실화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내에 개관한 독도체험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독도·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독도체험관에서는 올해 108개교 8,8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

도 현황,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독도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에 힘을 예정이다.

또한 독도교육주간 운영, 찾아가는 역사·독도강화 운영, 독도지리이학교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을 갖고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교육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독도체험관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대비 총력

### 도교육청, 상황실 운영...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조치 안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오는 31일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파업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 19회 실무교섭과 5회 본교섭을 진행해 왔음에도 노사간 의견 차로 3월 31일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차질이 없도록 급

식·돌봄 등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본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대체 급식(빵·우유 등 제공) 실시, 도시락 지원 교육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초등돌봄방 통합돌봄 운영, 하교시까지 교실 개방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꿈을 찾아, 봄' ... 우석대 미니 진로박람회 성료

### 지역 청년 등 1000여명 찾아

우석대학교가 개최한 '꿈을 찾아, 봄' 미니 진로박람회에 재학생 및 지역 청년 10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에 따르면 29일 문화관 일원에서 열린 진로박람회는 우석대학교 대학 일지리본부·LINC 3.0 사업단·진로취업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라북도일자리센터·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KT&G 상상유니브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꿈(Dream)·잡(Job)·고(Go)·봄(Born) 등 4개 존에서 △진로타로 및 MBTI 검사 △진로·취업 상담 및 컨설팅 △진로 퀴즈 쇼 △창년교양정책 안내 △퍼스널 컬러 진단 △스트레스



진단 및 체험 등이 진행됐다. 남현준 총장은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더불어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

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조기에 수립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진로·취업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재학생과 졸업생·지역 청년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평생교육체제 활성화... 전주대

순천대·제주대 등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평생교육체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순천대, 제주대, 대구한의대, 가톨릭대 등과 2022년 LIFE 호남·제주·대경·수도권 일반대학 성과공유 워크숍을 공동 개최, 순천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5개 대학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 연구 및 학점교류·학생교류, 현장학습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LIFE 사업 참여대학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교육의 교내 확산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학습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민 교수(창업경영금융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대학이 함께 협력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국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 실버세대 대상 경제교육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는 지난 27일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로트와 함께하는 실버경제'라는 주제로 심마를 선생님, 해발날, 사랑해 등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민 애창가요를 수강생들과 함께 불렀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김중국 명예교수(전북경제교육센터장)는 "시대별로 국민 애창가요를 선곡해 실버세대들과 함께 부르면서 재미있어 하는 실버세대들의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강생들은 "이런 옛 추억이 떠오르는 60~70년대의 국민가요를 함께 부르며 9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고 말했다

복지관 담당자인 김성진 대리는 "수강생들이 함께 매창을 부르며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다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